

“20대엔 인기...이젠 연기 자체가 좋아요”

더킹

태수 역 조인성
고교생 부터 40대 검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직접 내레이션도



“이번 영화에서 솔직히 제 얼굴과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됐죠. 그래도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 작품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13일 서울 종로구 삼정동의 카페에서 만난 조인성은 전날 ‘더 킹’ 시사회에서 완성본을 처음 본 뒤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낸 듯했다.

‘더 킹’은 평범한 검사 태수(조인성)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검사 한강식(정우성)을 만나면서 겪는 회로애락 등을 그렸다. 조인성과 정우성을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조인성이 맡은 태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영화다.

“요즘 영화들은 멀티캐스팅이 대부분인데, 이 작품은 태수의 촬영 분량이 100회차가 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재미있기는 한데, 고생길이 훤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이 작품을 찍고 나서 지금의 제 위치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죠.”

조인성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고교생에서부터 40대 검사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한다. 특히 직접 화자가 돼 내레이션한다.

조인성은 “작품 자체의 메시지가 강했다”면서 “제가 너무 세계 연가하면 관객들이 지칠 것 같고, 가볍게 연가하면 무게감이 덜할 것 같아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더 킹’은 ‘관상’(2013)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당초 현실 풍자를 염두에 두고 기획했지만, 최근 시국과 맞물리면서 공공롭게 현실을 반영한 영화로 바뀌었다. 시사회에서 이 작품이 공개된 후 일각에선 주인공 한강식과 박태수의 캐릭터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연상케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영화는 실제로 전두환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지는 시대적 배경 속에 정치검찰로 대변되는 권력 실세들의 모습을 비판적 시각으로 담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미소 짓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모습 등 실존 인물에 대한 다양한 자료 화면이 삽입돼 있다.

한재림 감독은 지난 12일 시사회에서 “탄핵장면은 당초 시나리오에도 있었다”며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등장인물들이 권력의 정점에 가는 동안 필요한 장면으로 생각했다. 실제로 있던 장면이고, 태수가 위기에 빠지는 지점과 맞닿아있어서 꼭 그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인성은 정치권력 풍자에 대해 “누구나 표현할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느냐”며 “그런 면에서 불안감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조인성은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2016), ‘괜찮아, 사랑이야’(2014), ‘그 겨울, 바람이 분다’(2013) 등에 출연하며 TV 브라운관에서는 꾸준히 시청자를 만났다. 그러나 스크린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다.

그는 “당초 영화 ‘권법’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영화 촬영이 지연되면서 2~3년이 지났고, 그 뒤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화 출연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2000년 드라마 ‘학교3’으로 데뷔한 조인성은 이제 연기 경력 17년 차의 중견 배우다. 마음가짐도, 연기도 한층 성숙해진 듯했다.

“20대 때는 잘 해보고 싶어서 저 자신에게 가혹했죠. 스스로 자학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었겠지만, 그때 제가 너무 가혹해서 저 스스로 찡한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인기도 있고, 잘나가고, 광고도 많이 찍는, 어떻게 보면 찻밥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연기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더라요. 이제는 20대 때보다 편안하게 연기 자체가 하고 싶어요. 앞으로 연기를 계속하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죠.”

/연합뉴스

김태희 향한 프로포즈 송?

비, 3년만에 신곡 ‘최고의 선물’ 발표

‘햇살보다 밝게 웃는 너의 모습에/ 웨딩 드레스보다 더 하얀 너의 모습에/ 나 기쁨에 눈물 흘려/ 그 눈물의 향기를 느껴/ 나를 향해 걸어오는/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최고의 선물’ 중)

배우 겸 가수 비(본명 정지훈·35)가 3년만의 신곡인 ‘최고의 사랑’을 발표했다. 가수 싸이가 만들고 비와 함께 작사한 발라드인 이 곡이 15일 0시 공개되자 비의 연인인 배우 김태희를 향한 프로포즈 송이 아니냐는 관심이 쏠렸다. 이 곡은 엠넷닷컴과 지니 등 2개 음원 차트 1위를 찍고 각종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비가 신곡 홍보를 위해 출연한 방송은 이 같은 궁금증을 부채질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서는 출연진들이 게스트로 나온 비의 ‘결혼임박설’로 물어가기도 했다.

비는 싸이가 “새벽 3시쯤 전화가 왔다. 너와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고 이 노래를 추천해주더라. 프로포즈 송으로 만든 노래”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강호동은 “여자 친구를 생각하며 가사를 썼느냐. 지금 결혼 발표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공개 프로포즈 축하해’, ‘점점 커져가는 결혼임박설’이란 자막이 뜨기도 했다.

당황한 비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한마디만 할게, 아니다. 신곡이 붙힐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는 음원 공개 1시간 전 네이비 V 라이브를 통해 “‘최고의 선물’은 가족이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팬들이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팬들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싶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싱글빙글쇼’ 30주년 특집 공개방송 오늘 개최

MBC표준FM(95.9MHz) ‘감성·김혜영의 싱글빙글쇼’(이하 싱글빙글쇼)가 방송 30주년을 맞아 청취자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싱글빙글쇼’는 오는 16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상암 MBC에서 30주년 특집 공개 생방송 ‘매일매일 싱글빙글’을 열어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고 자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200명의 애청자가 초대된다. 이날 방송에선 설운도, 노사연, 장미여관, 주현미 등 다양한 가수가 축하무대를 꾸민다. 짝짝 게스트의 출연도 예고됐다.

DJ 강석은 “30년이라는 세월이 믿기지 않는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DJ 김혜영 역시 “매일 매일 즐기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 어느덧 3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방송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싱글빙글쇼’는 1987년 1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서민과 함께해 온 대표적인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배우는 미래다 50 한국인의 팔도밥상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화랑>(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밤상의 전설 55 명인(재)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공감다큐, 사람(재) 55 토크생활제조(재)	00 자동차공부책상 위기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토크쇼 05 토코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일 거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쇼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온 우수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SBS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화랑>	00 월화 특별기획 <불야성>	00 월화미니시리즈 <낭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신년특선 해외걸작드라마 <셜록 시즌4>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씬스틸러 드라마전황
12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멕시코 맛기행 1부 타코와 살사의 충격>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 1~2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밥과 시금치 베이컨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동물과 인간의 한판 승부 13:40 출겨문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토!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 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 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백족 사육과 나시족 머느리> 20:50 세계테마기행 <태양의 나라 축제의 땅, 페루 1부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쿠스코> 21:30 한국기행 <겨울에는 무작정 1부 설국을 찾아서> 21:50 EBS 다큐 프라임 <친화의 신비, 독>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19일 戊寅)			
子 48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자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60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72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84년생 재수 발원하면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5, 77	午 42년생 진취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다. 54년생 썰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길것다. 66년생 뻥하 다 알고 있으면서도 또 속게 되는 우를 반복하지 말자. 78년생 판단의 징표를 찾게 되리라. 90년생 첨예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행운의 숫자 : 62, 82	未 43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하자. 55년생 여태까지 쌓아온 바를 평가받게 되리라. 67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79년생 오행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91년생 균형과 조화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15, 16	申 44년생 일시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형식으로 대하자. 56년생 말 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68년생 생각지 못했던 점이 돌발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갑작 작용을 하게 된다. 80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11, 30
卯 51년생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자기 께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75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87년생 역행할 일이 보이니 때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44	酉 45년생 전체의 입장을 두루 감안하자. 57년생 현하에 충실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69년생 때가 이르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81년생 만만치가 않으니 단단히 버려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90	戌 46년생 막힘없이 술술 풀리리라. 58년생 피곤하기는 해도 이득이 상당한 날이다. 70년생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82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에 놓인다. 행운의 숫자 : 98, 21	亥 47년생 까다로울 것이니 심도 있는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59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71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83년생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해두는 것이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32, 1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